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Acceptance of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벽암록』의 편찬과 구조 | <참고문헌> |
| 3. 한국에서 『벽암록』의 수용과 판본 | |

< 초 록 >

이 연구는 화두를 통한 수행을 강조하는 스님들 사이의 선문답을 모아놓은, 이른바 간화선(看話禪)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공안집인 『벽암록』을 대상으로 『벽암록』의 편찬과 중간, 저자와 구조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벽암록』의 수용과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현존하는 판본인 을유자본과 목판본의 서지사항, 편찬체제 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설두중현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강의한 원오극근의 강의록『벽암록』을 원오의 제자들이 1105년경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며, 1125년에는 이미 『벽암록』이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필사본 『벽암록』은 강의장소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성도본(成都本), 협산본(夾山本), 도림본(道林本)의 3종이 존재했다.

2) 『벽암록』은 원오극근이 입적하기 전인 1128년경에 처음으로 간행된 후 많이 유포되자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대혜종교에 의해 1163년[대혜의 몰년] 이전에 소실되었고, 처음 간행된 지 172년 만인 1300년에 원나라의 장명원에 의해 중간(重刊)되었다. 장명원은 중간할 때 사본(寫本), 설당간본(雪堂刊本), 촉본(蜀本) 등의 이본을 참고했다.

3) 『벽암록』은 고려와 조선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간경도감에서 국역되지도 않았고, 주석서나 비평서도 편찬되지 않았다.

4) 새로 소개되는 목판본인 심원사판 『벽암록』은 보물로 지정된 을유자본 『벽암록』과 서지사항을 비교하면, 계선과 흑구의 차이만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를 볼 때 심원사판 『벽암록』은 보물로 지정된 을유자본 『벽암록』의 번각본이다.

5) 을유자본 『벽암록』은 10권5책, 심원사판 『벽암록』은 4권1책으로 전자는 고척 100개를 다 수록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1-40까지 40개만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심원사판 『벽암록』은 을유자본 『벽암록』의 축약본은 아니다.

6) 『벽암록』에 대한 국역서가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볼 때, 『벽암록』이 대중화, 일반화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하겠다.

要語: 『벽암록』, 『불과원오선사벽암록』, 설두중현, 원오극근, 대혜종교, 을유자, 심원사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 동국대학교의 정영식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14년 11월 25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pilation, reprinting, authors and the structure of the Kōan collections. The collection records the statements and actions of eminent practitioners of Chán. Also known as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it is a model text for instruction in the practice of Chán, a Buddhist meditation(看話禪). The meditations are presented through conversations between monks practicing asceticism. To examine the dissemination and acceptance of the Blue Cliff Record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tructure and bibliographic style of two existing editions of the text: the Eulyu metal type version (named for the year it was cast and printed) and a wood block printed ver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isciples of the Chan Master Yuanwu have started collecting their master's lectures on Chán Master Xuedou Chongxian's Songgu baize(頌古百則) circa 1105. The notes taken by Yuanwu's disciples were gathered and compiled as the Blue Cliff Record, and it was transcribed and widely disseminated in 1125. Depending on the lecture place, the manuscript of the Blue Cliff Record exist in three different kinds of versions, Seongdobon(成都本), Hyeopsanbon(夾山本), Dorimbon(道林本).

2) The Blue Cliff Record was printed and disseminated in 1128 for the first time before Yuanwu Keqin passed away. However, it was destroyed by Dahui Zonggao (1089-1163) who afraid of people's obsession with the Buddhist text before the year 1163. It was reprinted by Jang Myeong Won of the Yuan Dynasty in 1300, 172 years after it was first published. Jang Myeong Won referred to the three different editions of the Blue Cliff Record: Manuscript [寫本], Seoldangganbon(雪堂刊本) and Chokbon(蜀本).

3) 'Blue Cliff Record' was not widely accepted during the Goryeo and the Joseon Dynasty, as the book was not translated into Korean by Gangyeongdogam(government office for publishing Korean-version Buddhist texts), and its explanatory verses or commentary were not published.

4) According to the study,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newly introduced Simwon Temple version and the Eulyu Version of the Blue Cliff Record, lies in the style of bibliography, relating to two textual features, Gyeseon(界線) and 'Heukku(黑口)'. Thus, the Simwon Temple version of the Blue Cliff Record may be considered a reprint of the Eulyu version, a national treasure.

5) The Eulyu version of the Blue Cliff Record consists of ten volumes and five books while the Simwon Temple version has four volumes and one book. The former contains all 100 Kōan, while the latter contains only 40 koan, from 1 to 40. This shows that the Simwon Temple version of the Blue Cliff Record is not a condensed version of the Eulyu text.

6) With the public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lue Cliff Record in around 1990, the popularity of 'Blue Cliff Record'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Key words: Blue Cliff Record, Chán Master Xuedou Chongxian, Yuanwu Keqin, Dahui Zonggao, the Eulyu metal type, Simwon Temple

1. 머리말

중국의 선승들은 대화를 이용하여 상대를 지도한다. 이 대화들 중에는 그 효능에 대하여 당시 수행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화를 공안(公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공안들 속에는 공안을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다량 들어 있는데, 이것을 화두(話頭)라고 한다.¹⁾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 많은 화두가 만들어졌다. 훗날 선수행자들은 이렇게 생성된 화두를 강평하거나 송(頌)을 붙였는데 송나라의 설두중현(雪竇重顯)이 대표적이다. 그는 『전등록(傳燈錄)』의 1,700개 공안 가운데 유명한 화두 100가지를 선별하여 각각에 송을 붙였다. 이를 『설두송고(雪竇頌古)』라 한다. 그리고 원오극근(圓悟克勤)은 이것을 텍스트로 삼아 강의를 했다. 이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이 노트 정리한 것을 훗날 출판했는데, 이 책이 바로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 이하 ‘벽암록’)』으로 간략하게 『벽암록(碧巖錄)』, 혹은 『벽암집(碧巖集)』으로 일컬어진다.²⁾ 이렇게 화두를 강의하는 전통은 훗날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화두 자체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일체의 다른 생각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화두를 활용하는 수행이 생겼다. 이것을 간화선(看話禪)이라고 한다.³⁾

『벽암록』은 화두를 통한 수행을 강조하는, 스님들 사이의 선문답을 모아놓은, 이른바 간화선(看話禪)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공안집으로 임제종의 애송도서였다. “『벽암록』은 선(禪)의 문헌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책[宗門第一書]이다.” 이 말은 『벽암록』의 복간본을 펴낼 때 편자인 장명원(張明遠)이 책의 머리에 붙인 말이다.

하지만 『벽암록』의 국내 판본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벽암록』의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에서 “(이

1) 신규탁,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강의, 참구에 관한 검토: 『벽암록』 제1칙 『달마불식(達磨不識)』 번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선학』 제30권(2011. 12), 186.

2) 『大藏經入門；爲單篇書目簡介』(台北: 嚴寬祐文教基金會, 2003), <http://buddhism.lib.ntu.edu.tw/BDLM/toModule.do?prefix=/search&page=/search_detail.jsp?seq=350394>, 2014. 10. 21. 접속.

3) 신규탁(2011), 186.

『벽암록』과 대체의 『서장(書狀)』을 같이 보고, 원오의 『심요(心要)』를 곁들인다면, …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고 하였다. 대체의 『서장(書狀)』은 고려조에 수용되어 조선조에 26회 이상 판각되는⁴⁾ 등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데 비해, 『벽암록』은 세조조에 주조된 을유자 중간자로 인출되어 전존본⁵⁾도 드물고, 번각본도 찾기 어렵다.

연구현황을 보면, 현대에 이르러서도 『벽암록』에 대한 국역서⁶⁾를 제외하면, 벽암록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이다.⁷⁾ 판본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末木文美士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연구가 없는 이유는 『禪學辭典』에 “1526년 深源寺에서 南明泉和尚頌證道歌, 碧巖錄 刊行”⁹⁾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을유자본 이외의 다른 판본이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 필자가 울산의 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심원사판 목판본 『벽암록』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에 목판본 『벽암록』을 소개하고, 이를 을유자본과 서지사항·편철 등을 비교하여 두 판본 사이의 관계나 특징 등을 밝히고자 한다.

-
- 4) 裴賢淑,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합집(1990. 6), 170.
 - 5) 삼성출판박물관 외에 국립중앙도서관(권6-8), 호림박물관(권9-10), 일본의 대동급기념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다.
 - 6) ① 安東林 譯註, 『新譯 碧巖錄』(서울: 현암사, 1978); ② 圓悟克勤 著, 백련선서간행회 역, 『碧巖錄』 上中下, 禪林古鏡叢書 35-37 (합친: 藏經閣, 1993); ③ 문재현 역저, 『벽암록』(서울: 바로보인, 1996); ④ 曹五鉉 譯解, 『碧巖錄』(서울: 불교시대사, 1999); ⑤ 김홍호 지음, 『푸른 바위에 새긴 글: 벽암록 풀이』(서울: 솔출판사, 1999); ⑥ 宋炳珍, 『碧巖錄 研究』(부산: 半島印刷社, 2004); ⑦ 圓悟克勤 著, 鄭性本 譯解, 『碧巖錄』(서울: 韓國禪文化研究院, 2006); ⑧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1-4 (서울: 민족사, 2007); ⑨ 한정섭, 『碧巖錄』(가평: 불교정신문화원, 2007); ⑩ 진운 역, 『미친놈이 풀어 쓴 벽암록』(진주: 신아출판사, 2009); ⑪ 윤용진 역해, 『세상 碧巖錄: 攝心解說』(서울: 애니빅, 2013).
 - 7) 정영식, 『韓國看話禪의 源流』(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신규탁,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강의, 참구에 관한 검토: 『벽암록』 제1칙 『달마불식(達磨不識)』 번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선학』 제30권(2011. 12), 185-211.; 정영식, “일본 화엄승 鳳潭의 『벽암록』 비판: 『鐵壁雲片』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36권(2013. 12), 136-159.
 - 8) 末木文美士,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호(1992. 5. 30), 51-81.
 - 9) 李哲敎,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서울: 佛地社, 1995), 813.
 - 10) 『全國寺刹所藏木板集』에서도 벽암록을 찾을 수 없다.

『벽암록』은 권수부에 ‘① 建炎戊申(1128)…比丘普照謹序, ② 大德四年庚子(1300)…方回萬里序, ③ 大德甲辰(1304)…三教老人書, ④ 大德九年歲乙巳(1305)…聊城周馳書’에서 보듯이, 1128년부터 1305년까지 180년에 걸쳐 쓰여진 4편의 서문이 편철되어 있다. 권말부에는 ‘① 宣和乙巳(1125)…關友無黨記 ② 重刊園悟禪師碧巖集疏: 今月日疏 ③ 大德壬寅(1302)…比丘淨日拜手謹書 ④ 延祐丁巳(1317)…比丘希陵拜書以爲後序 ⑤ 延祐丁巳(1317)…海粟老人馮子振題’에서 보듯이, 1125년부터 1317년까지 190여년에 걸쳐 쓰여진 후서가 5편 편철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4편의 서문과 5편의 후서를 통해 『벽암록』의 편찬과 소각, 중간(重刊)에 대해 살펴보고, 『벽암록』의 저자와 구조를 파악해 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벽암록』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벽암록』의 편찬과 구조

『벽암록』에서 ‘벽암’은 원오극근이 거주하였던 협산(夾山) 영천원(靈泉院)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천원을 벽암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당나라 때에 협산 영천원을 처음 개창한 협산선회(夾山善會, 805-881)가 그곳의 풍경을 묘사하여 ‘잔나비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오리 뒤로 돌아가니, 새가 꽃을 물고와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리네(猿抱子歸青嶂後。鳥銜華落碧巖前)’라고 읊었던 데서 유래한다.

2.1 『벽암록』의 저자

『벽암록』은 중국 송나라의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과 원오 극근(園悟克勤, 1063~1135), 두 사람에게 의해서 완성되었다. 설두는 운문종 계열의 사람이고, 원오는 임제종 계열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촉(蜀)지방 사천성(四川省) 출신으로서 설두는 1052년 입적했고, 원오는 1063년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11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다. 『벽암록』은 대혜종고

(大慧宗杲, 1089~1163)가 불살라 버림으로써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뻔했는데, 원나라의 장명원에 의해 다시 판각됨으로써 세상에 유통되게 되었다.

1)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¹¹⁾

설두중현은 중국 송대(宋代)에 운문종(雲門宗) 승려로서 사천성 봉계현(蓬溪縣) 수녕(遂寧) 사람으로 속성은 이씨이고, 자는 은지(隱之)이다. 집안은 부유했으며, 어려서는 대대로 전해온 가학인 유학(儒學)을 공부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20세 전후에 출가하여 처음에는 경전공부를 하다가 석문(石門)의 문하로 들어가 선수행을 시작했다. 여기서 얼마 후 석문의 지시로 지문광조(智門光祚)를 찾아가 선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¹²⁾

그는 그 후 취봉(翠峰)의 영은사(靈隱寺)에 머물다가 1022년에 명주의 설두산(雪竇山) 자성사(資聖寺)로 옮겨 여기서 31년 간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러 설두(雪竇)화상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 그의 이름이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달리 시적인 감성이 풍부했고 문장력이 뛰어났던 그는 운문의 4세로서 운문종을 크게 중흥시켰는데, 그의 법(法)을 이어 받은 제자가 무려 70여 명이나 되었다. 1052년 6월 10일 입적하자 조정에서는 명각대사(明覺大師)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에게는 『벽암록』의 저본이 된 『설두송고백칙(雪竇頌古百則)』 이외에 『명각선사어록(明覺禪師語錄)』, 『동정어록(洞庭語錄)』, 『설두개당록(雪竇開堂錄)』, 『폭천집(瀑川集)』, 『조영집(祖英集)』, 『염고집(拈古集)』, 『설두후록(雪竇後錄)』 등의 저서가 있다.

11)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1 (서울: 민족사, 2007), 22-23. ; “號稱雲門中興者~雪竇重顯,” 各宗祖師傳記 (台北, 佛陀教育基金會), <<http://www.budaedu.org/doctrin/t57.php>>, 2014. 11. 3. 접속.

12) 지문 광조 밑에서 선 수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지문에게 이렇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문은 그를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그러자 그는 지문 가까이로 다가갔는데 지문은 느닷없이 불자(拂子)로 그의 얼굴을 쳤다. 그 순간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지문은 또 불자로 그를 때렸다. 그러자 그는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지문 문하에 있기 5년 후의 일이었다(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2007), 22).

2) 원오극근(園悟克勤, 1063~1135)

원오극근은 사천성 승녕현(崇寧縣) 사람으로 속성은 낙(駱)씨다. 유학의 가문에 태어난 극근은 머리가 물소와 같아 골상이 범상치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우연히 묘적사에서 불경을 보고 읽기를 세 번하고 감복하여 이 절의 주지 자성스님에게 촉발한 뒤 널리 선지식을 찾아 두루 참했다. 극근이 생존했던 11~12세기는 정강(靖康)의 난이 일어나 송조(宋朝)가 한때 멸망해 남송의 고종이 송나라를 다시 정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유학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정명도·정이천 등의 대유학자가 배출되어 중국사상의 중심을 형성해 가던 때였다.¹³⁾

송 휘종(徽宗) 승녕(崇寧) 초년(1102)에 그는 홀로 계신 노모를 뵈기 위하여 고향에 갔다가 성도(成都)의 소각사(昭覺寺), 호남(湖南)의 협산(夾山)의 영천원(靈泉院), 상서(湘西)의 도림사(道林寺) 등에 머물면서 재상 장상영(張商英)과 화엄의 요지에 대해 토론하고,¹⁴⁾ 운문종인 설두의 『송고백칙』을 강술하였다. 강의록을 제자들이 모아 편찬한 것이 『벽암록』이다. 임제종이 융성함에 따라 운문종의 설두의 『송고백칙』 원본(原本)보다 그 해설서인 『벽암록』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북송의 휘종이 정화(政和) 초년(1111)에 불과선사(佛果禪師)라는 호를, 남송의 고종은 원오선사(園悟禪師)라는 호를 내리고 선사를 극진히 예우했다. 원오는 73세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시호는 진각선사(眞覺禪師)이며, 남악(南嶽)의 14세, 임제종의 11세로서 법을 잇는 제자로는 대혜종고(大慧宗杲)와 호구소룡(虎丘紹隆)을 비롯하여 75명의 제자들이 있다. 저서로는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전10권)을 비롯하여 『원오불과선사어록(園悟佛果禪師語錄)』(전20권), 『원오선사심요(園悟禪師心要)』(2권), 『격절록(擊節錄)』(2권) 등이 있다.¹⁵⁾

13) “(선사들의 선문답)원오극근과 대혜선사,” 『불교신문』 302호, 1998. 12. 0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4>>, 2014. 10. 16. 접속.

14) “園悟克勤禪師,” 禪門探微, 中台山月刊 162期.

<<http://www.ctworld.org/monthly/162/k01.htm>>, 2014. 11. 11. 접속.

15)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1 (서울: 민족사, 2007), 23-28. ; “園悟克勤禪師,” 禪門探微, 中台山月刊 162期.

3)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대혜종고는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楊岐派)의 선승으로 성은 해(奚)씨고, 자는 대혜(大慧)이며, 호는 묘희(妙喜)이다. 12살에 출가해 혜제(慧齊)와 소정, 문준(文準) 등의 수하에서 참선하여 수행하고, 원오극근에게 인가를 받았다.¹⁶⁾ 처음에는 조동종(曹洞宗)의 문하에서 수행을 하였으나, 전승을 중시하는 조동종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고 21세에 임제종 황룡파(黃龍派)의 담당문준(湛堂文準, 1061~1115)의 제자가 되었다. 문준은 입적하기 전에 종고에게 임제종 양기파의 원오극근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당시 극근은 사천성의 소각사에 머무르고 있어 미처 찾아가지 못했다. 그러다 1124년 개봉(開封)의 천녕사(天寧寺)에서 극근에게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었고, 극근에게서 <임제정종기(臨濟正宗記)>를 받아 임제종 양기파의 제5대 전인이 되었다.

종고는 간화선을 선종 수행의 주류로 자리잡게 한 인물이다. 그는 조동종의 평지정각(宏智正覺)과 선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며, 공안(公案)을 통해 본래 지닌 불성을 자각하여 깨달음을 얻는 임제종의 선법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바른 수행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좌선 자체를 중시한 선법을 묵조선(默照禪)이라며 비판하였다.

종고 이후 임제종 양기파는 선종의 정통으로 자리잡았으며, 종고의 사상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고려의 지눌(知訥, 1158~1210)이 종고의 『대혜어록(大慧語錄)』을 통해 간화선을 받아들였고, 일본에서는 1246년 남송의 선승인 도룡(道隆, 1213~1278)이 일본으로 건너가 종고의 선법(禪法)을 전파하였다.¹⁷⁾

대혜종고는 『벽암록』을 태운 장본인이며 우리나라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정신적인 스승이었고, 그 유명한 『서장(書狀)』의 저자이다. 동시에 간화선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당사자다. 고려 말의 선승인 태고보우(太古普愚)와 나옹 혜근

<<http://www.ctworld.org/monthly/162/k01.htm>>, 2014. 11. 11. 접속.

16) 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희문화사, 2011).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938&cid=42980&categoryId=42980>>.

17) 종고(宗杲). 두산백과.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懶翁惠勤)은 법맥상으로 볼 때 원오극근의 제자인 호구 소룡의 8대 후손에 해당한다.

2.2 『벽암록』의 편찬과 중간

『벽암록』의 편찬과 중간에 대해서는 4편의 서문과 5편의 후서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원오의 『벽암록』 편찬과정:

건염 무신((建炎 戊申, 1128년), 보조(普照)의 서문

원오의 『벽암록』의 가치, 편찬 과정, 원오와 서문을 쓴 보조의 관계는 보조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두선사가 선승이 자기 초월[向上]에 필요한 요점을 말해주셨다. 이에 불과원오(佛果園悟)스님께서 벽암(碧巖)에 계실 때 수행하는 이들이 잘 몰라 이 미혹을 깨우쳐 주실 것을 청하니,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다. 백 칩의 공안을 첫머리부터 하나로 꿰어 수많은 조사(祖師)들을 차례차례 점검했다. 지극한 도는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종사께서 자비를 베풀어 말로써 잘못을 고쳐주셨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나 보조는 다행히도 원오스님을 곁에서 모시어 이제껏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도반들이 스님의 말씀을 모아서 책을 엮고 못한 내가 그 내력을 적는다. 때는 건염(建炎) 무신(戊申, 1128년) 늦은 봄 그믐날, 제자 보조(普照)는 삼가 서문을 쓰다.

이를 볼 때, 보조는 원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로서 제자들이 스승인 원오의 강의록을 모아서 『벽암록』을 편찬할 때 서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벽암록』이 처음 간행된 것은 1128년경으로 원오(1063~1135)가 입적하기 전으로 파악된다.

2) 『벽암록』의 생성부터 부활까지:

대덕(大德) 4년, 경자(庚子, 1300년) 방회만리(方回萬里)의 서문

『벽암록』의 생성과 소각, 재생과정은 방회만리(方回萬里)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달마에 의해 선종이 이룩된 이후, 남종과 북종으로 나뉘었으며, 이때에 선종의 송고가 세상에 퍼지게 되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었다. 이에 설두와 원오도 노파심이 깊어 『벽암록』을 저술하였는데, 대혜가 (벽암록을) 불살라 버렸다. 우중 땅에 사는 장위(張煒: 字는 明遠)가 목판을 다시 깎아 세상에 유포시키니 이것도 역시 노파심이 간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덕(大德) 4년 경자(庚子, 1300년)에 방회(方回: 字는 萬里)는 서를 쓰다.

이를 볼 때 『벽암록』이 저술, 간행되고 난 이후 원오의 제자인 대혜가 (『벽암록』을) 불살라 버렸고, 우중 땅에 사는 장위(張煒: 字는 明遠)가 목판을 다시 깎아 세상에 유포시킨 것이 현재 전래함을 알 수 있다. 『벽암록』이 1128년에 처음 간행된 후 대혜의 물년인 1163년 사이에 불태워졌다가 1300년에 중간되었으므로 처음 탄생 후 172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3) 『벽암집』을 불태우고 복간한 의미:

대덕(大德) 9년, 을사(乙巳, 1305년) 주치(周馳)의 서문

대혜가 『벽암집』을 불태우고 장명원이 복간한 의미는 1305년 주치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혜가 원오의 『벽암집』을 불사른 것은 집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부처가 출세간법을 말씀하셨으나 언어나 문자로써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언어문자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이는 적고 우매한 이가 많고, 깨달은 이는 적고 앞으로 깨달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주치)는 이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꼭 구하고 싶었는데, 우중 땅에 사는 장명원이 다시 목판을 새겨 와서 내게 보여주었다. 서로 도와서 책을 만들고 또 서문을 쓰게 되었다. 대덕(大德) 9년, 을사(乙巳, 1305년) 요성주치(聊城周馳)는 서문을 쓰노라.

이를 볼 때, 대혜가 『벽암집』을 불태운 이유는 참선수행을 멀리하고 『벽암집』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오극근의 제자였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가 당시의 수선자(修禪者)들이 이 책의 선화(禪

話)만 익히고, 실제 수행을 게을리 하는 자가 많아지는 폐단이 생기자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의 근본중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대중 앞에서 이 책의 판목(版木)을 불태워버린 후로 이 책이 자취를 감춰 총림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다.”¹⁸⁾ 이렇게 『벽암록』이 사라진 후, 주치는 『벽암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하던 차에 장명원이 『벽암집』을 목판에 새겨 보여주므로 서문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혜로운 이는 적고 우매한 이가 많고, 깨달은 이는 적고 앞으로 깨달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치는 『벽암집』 복간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벽암집』이 1128년경에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자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대혜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원나라의 장명원에 의해 다시 판각되었는데, 장명원은 판각한 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서 서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공안의 의미와 원오와 대혜:

대덕 갑진((大德 甲辰, 1304년) 삼교노인(三敎老人)의 서문

『벽암록』은 공안집이다. ‘공안’의 의미는 삼교노인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벽암록』을 만든 원오와 그것을 태운 대혜 중에 “누가 옳은가?”라고 한다면, 나는 “둘 다 옳다”고 대답할 것이다. 달마가 중국에 와서 오직 마음만을 전하고 문자를 운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문자가 아니면 전달할 수 없기에 역시 이 문자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찍이 조사들의 가르침을 적은 책을 공안(公案)이라 불렀는데, 이는 당나라 때에 생겨 송나라 때에 성행하게 되었다.

이 ‘공안’이라는 두 글자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른바 관리들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 가지 역할이 있다. ① 면벽참선을 오래하고 행각을 끝냈더라도 참된 깨달음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잘못된 선에 떨어지기 쉽다. 그것을 가릴 만한 눈을 갖춘 어른들이 그것을 판별해주시느라 꾸짖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여 참된

18) 지안, “교리&법문 <41> 깊은 근원 가려내 바닥의 숨은 도리 분석: 대표적 공안(公案)평가집(評唱集) <벽암록(碧巖錄)>,” 『불교신문』 제2971호(2013. 12. 18).

의미를 깨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마치 노련한 관리가 잘못에 의한 죄를 다스리고, 그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것이 (공안의) 첫 번째 역할이다.

② 다음은 육조스님께서 영남 지방에 오신 이래로 (마조스님은 서강의 물을 다 마셔야만 만법에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답해주겠다 하였으나) 서강의 물을 마시지 못했고, 도망간 양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으나 갈림길이 너무 많아 그만 울고 돌아왔지만, 지남철은 언제나 남쪽을 가리킨다. 자비심으로 이끌어주시고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여, 스스로 깨치도록 하셨네. 이것은 마치 재판관이 법에 의거하여 무죄임을 밝혀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공안의) 두 번째 역할이다.

③ 다음은 다른 길로 빠질까 염려하여 더욱 고삐를 거머쥐는 것이다. 하잘 것 없는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야 하며, 흰 바탕에는 잡된 물이 들기 쉽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가엾게 여기셨다. 대선지식께서 이를 간절히 일러주시고 죽자 살자 참선하게 하시니, 하시는 일 모두가 마치 관청에서 법령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지켜서 못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자마자 당장에 쫓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공안의) 세 번째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안을 모은) 공안집을 만드는 것은 마치 세간의 금과옥조[홍룡한 법 조문]·청명대월[홍룡한 판례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원오스님과 대혜스님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오스님은 뒷날의 자손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설두스님의 송고(頌古)를 거량해 주셨고, 대혜스님은 (자손들이) 불에 탈까 물에 빠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벽암록』을 불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그 뒤 2백여 년이 지나서 우중땡에 사는 장명원이 목관을 새겨 길이 전하였다. 이 책이 세상에 유포되는 데에는 이처럼 그 유서가 매우 깊다. 대덕(大德) 갑진(甲辰, 1304년) 4월 보름, 삼교노인(三敎老人)이 쓰다.

이를 볼 때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기연이나 제자들과의 문답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공안(公案)이라 불렀는데, 이는 당나라 때에 생겨 송나라 때에 성행

하게 되었다. 공안의 역할은 수행자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스스로 깨치도록 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세간의 금과옥조와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삼교노인은 이러한 공안집을 만든 원오나 태운 대해 모두 옳았음을 말하고, 장명원에 의해 세상에 유포되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5) 『벽암록』의 유포:

선화 을사(宣和 乙巳, 1125)년 관우무당(關友無黨)의 후서

『송고백칙』 강의모음집인 『벽암록』의 유포에 대해서는 관우무당(關友無黨)의 후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두의 『송고백칙』은 총림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요긴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책은 경론과 유가의 문장과 역사서를 인용하였으므로 해석하고 분석해 주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다. 원오에게 설두의 『송고백칙』을 강의해 줄 것을 청하니, 성도(成都)와 협산(夾山)과 도림(道林)에 있을 때 강의했다. 말은 같지 않았지만 뜻은 하나였다. 제자들이 스님의 강의를 모으고 기록한 지 20년이 되었다. 이 모음집[벽암록]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말의 순서가 바뀌어서)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였다. 선화 을사(宣和 乙巳, 1125)년 관우무당(關友無黨) 쓰다.

무당이 후서를 쓴 1125년에 강의록을 모으고 기록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한 것을 볼 때, 1105년경부터 강의록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1125년에는 이미 『벽암록』이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던 듯하다. “말은 같지 않았지만 뜻은 하나였다.”로 미루어 필사본 『벽암록』은 강의장소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성도본(成都本), 협산본(夾山本), 도림본(道林本)¹⁹⁾의 3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9) 석지현은 ‘관우무당(關友無黨)의 후서’ 해설에서 “성도(成都)에서의 강의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을 <쑤본(蜀本)>(또는 川本), 협산(夾山)에서의 강의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을 <복본(福本)>, 도림(道林)에서의 강의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을 <일야본(一夜本)>이라 한다. … 원오의 생전에 이미 세 개의 다른 판본이 유통되게 된 것이다.”(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4 (서울: 민족사, 2007), 495-496)고 하였으나, 무당이 후서를 쓴 1125년에는 아직 『벽암록』이 판각되기 이전이므로 여기에서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은 『벽암록』의 필사본일 것으로 추측된다.

6) 『벽암록』의 중요성과 중간의 의미: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는 벽암록을 다시 판각[重刊]할 때 쓴 글이지만, 글을 쓴 연대와 작자는 알 수 없다. 이 글에는 『벽암록』의 중요성과 중간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두의 『송고백칙』을 원오가 주석을 붙여 강의하여 종지(宗旨)를 내보인 것은 정도(正道)이고, 대혜가 경판을 불태워 전하지 않게 한 것은 임시방편이다. 인연 따라 『벽암록』은 다시 판각된 것이다. 이 경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 『벽암록』과) 대혜의 『서장(書狀)』, 원오의 『심요(心要)』를 같이 본다면, ... 한번 펼쳐 봄에 모든 어리석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 『벽암록』을 읽지 않으면 달마가 서쪽으로 온 뜻[祖師西來意]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중간소에서는 대혜가 경판을 불태웠더라도 『벽암록』이 다시 판각되는 것도 인연이며, 『벽암록』은 수행자들이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 원오와 대혜, 장명원의 상반된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덕 임인(1302)년 정일(淨日)의 발문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오가 협산에 있을 때 『벽암록』이 완성되었다. 원오는 불조의 깊은 뜻을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대혜는 수행자들이 도에 근본을 두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책을 없애 버렸다. 그런데 장명원이 판각하여 세상에 유통시키니 이를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대덕 임인(大德 壬寅, 1302) 비구 정일(淨日) 삼가 쓰다.

이글에서 필자는 이 세 사람의 상반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미루었다.

8) 대혜의 『벽암록』 소각의 계기와 장명원의 복간 과정:

연우 정사(延祐 丁巳, 1317) 희릉(希陵)의 후서

대혜의 『벽암록』 소각 계기와 장명원의 복간 과정은 1317년에 쓴 희릉(希陵)의 후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오가 설두의 『송고백칙』을 평창하

여 조사들의 역량을 보였다. 대혜가 수행자들이 마음을 밝히지 않고 언어만을 숭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책을 불질렀다. 그러나 책을 지은 원오나 불지른 대혜나 마음은 하나다. 장명원이 우연히 이 책의 사본 뒷부분을 구했고, 설당간본(雪堂刊本)과 촉본(蜀本)을 구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이 책을 간행해서 유통하게 했다. 연우 정사(延祐 丁巳, 1317) 경산 주지 비구 희릉(希陵) 글을 지어 후서로 하다.

이를 보면, 장명원이 중간할 때 사본, 설당간본, 촉본 등의 이본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9) 장명원의 『벽암록』 복간에 대한 세간의 루머에 대한 풍자진의 해명:

연우 정사(延祐 丁巳, 1317)년 풍자진의 발문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도의 원오가 협산에서 설두의 『송고백칙』을 강의했다. 그런데 큰제자 대혜가 수행자들이 언어문자에 빠져서 옛 조사들의 뜻을 저버릴까 염려해서 『벽암록』을 불태워버렸다. 불탄 지 170-180년 뒤에 죽은 재에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런데 장명원의 두 아들이 병을 얻게 되자 사람들은 장명원이 과보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장명원 두 아들의 병은 이(『벽암록』) 때문이 아니라 업보 때문일 것이다. 불 태운 대혜가 옳은 것이 아니라 원오가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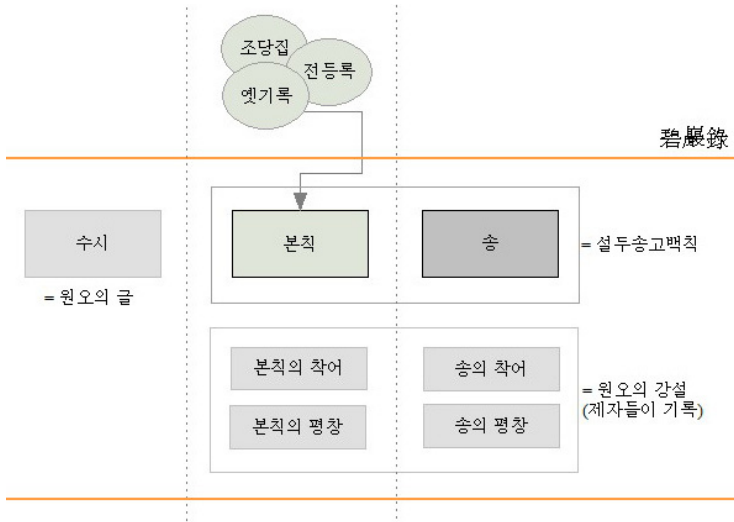
앞에서 많은 이들은 원오와 대혜 둘 다 옳다는 양시론(兩是論)을 주장했는데, 풍자진은 대혜가 아니라 원오가 옳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 4편의 서문과 5편의 발문 분석을 통해 『벽암록』의 편찬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설두중현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강의한 원오의 강의록[벽암록]을 원오극근의 제자들은 1105년경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며, 1125년에는 이미 『벽암록』이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필사본 『벽암록』은 강의장소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성도본(成都本), 협산본(夾山本), 도림본(道林本)의 3종이 존재했다. 『벽암록』은 원오가 입적하기 전인 1128년경에 처음으로 간행되어 많이 유포되자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대혜종고에 의해 1163년[대혜의 몰년] 이전에 소실되었고, 처음 간행된 지 172년 만인 1300년에 원나라의 장명원에

의해 중간되었다. 장명원은 중간할 때 사본(寫本), 설당간본(雪堂刊本), 촉본(蜀本) 등의 이본을 참고했다.

2.3 『벽암록』의 구조²⁰⁾

『벽암록』의 구조를 형성과정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설두송고백칙』은 설두중현이 『조당집』·『전등록』 등의 옛 어록에서 공안 백칙을 뽑고 거기에 송(頌)을 붙인 것이다. 원오는 제자들에게 『설두송고백칙』의 백칙과 송을 알기 쉽게 강의 했는데, 백칙(본칙)에 대한 착어와 평창, 그리고 송에 대한 착어와 평창 및 각칙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수시를 부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벽암록』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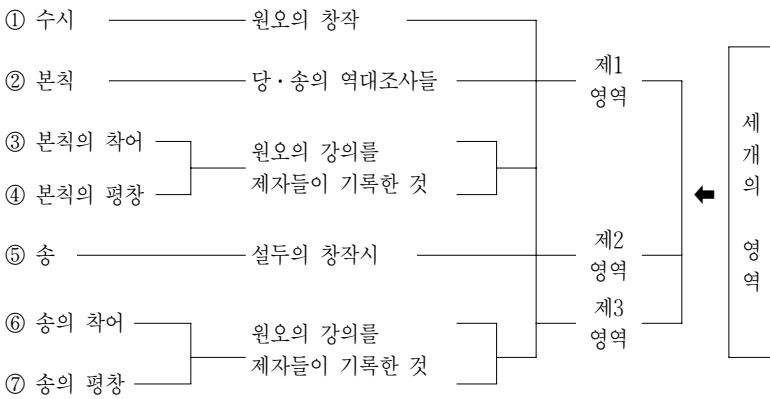


<그림 1> 『벽암록』의 구성도

20)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1, (서울: 민족사, 2007), 28-31.

21) “벽암록 읽기”, <<http://www.gosinga.net/archives/2369>>, 2014. 5. 3. 접속.

위 <그림 1>에서 보았듯이 『벽암록』은 ① 수시(垂示), ② 본칙(本則), ③ 본칙(本則)의 착어(著語), ④ 본칙(本則)의 평창(評唱), ⑤ 송(頌), ⑥ 송(頌)의 착어(著語), ⑦ 송(頌)의 평창(評唱)의 7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 당나라 때 성립한 옛 공안[古則], ㉡ 송나라 때의 설두가 붙인 송[頌古], ㉢ 설두의 제자인 원오가 추가한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겹쳐져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벽암록』의 7중 구조²²⁾

① 수시(垂示): 일종의 머리말[序文]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본칙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말하자면 수시는 본칙을 읽기 위한 일종의 마음가짐을 서술한 단상(斷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시는 원오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이라고 하는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과장이 심하다.

② 본칙(本則): 옛 공안[古則, 또는 公案]으로서 『벽암록』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100개의 옛 공안이 『벽암록』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앞의 수시와 뒤의 착어, 본칙의 평창, 송, 송의 착어, 송의 평창은 모두 이 본칙의 이해를 돕기

22)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2007), 31.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100개의 옛 공안에는 『금강경』 문구를 비롯하여, 달마에서 대룡지홍(大龍智洪, 1000~?)에 이르기까지 개성이 각기 다른 선승들의 갖가지 선문답이 총망라되어 있다.

③ 본칙(本則)의 착어(著語): 착어란 일종의 촌평(寸評)으로서 하어(下語)라고도 한다. 속담과 속어 투성이며 문장의 응축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원오 특유의 익살스러움이 가미되어 있으며, 동시에 원오의 직관력과 예리함이 번뜩인다. 언어의 충격력이 대단하므로 이 착어의 속독만으로도 순간적인 깨달음이 가능하다. 이 착어는 반어(反語)적, 역설적, 냉소적, 욕설적이라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④ 본칙(本則)의 평창(評唱): 평창이란 평론제창(評論提唱)의 준말이다. 평창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역할이 있다. 첫째는 본칙의 배경이 되는 고사(故事)와 인물의 소개, 둘째는 본칙 자체에 관한 설명과 주석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 평창을 토대로 본칙을 다시 읽으면 본칙 전체의 윤곽이 잡힌다. 그러나 문장 전체가 속어체(俗語體)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장체 한문 해석만으로는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다.

⑤ 송(頌): 설두가 옛 공안 100개 하나하나에 붙인 공안시[頌古]를 말한다. 설두의 이 공안시는 그 격조가 높고 기상이 험준하며, 선적(禪的)인 직관력과 시적인 영감이 풍부하다. 시상(詩想)의 방향전환이 무척 빠르고 문장의 세련미가 돋보인다. 그래서 예로부터 설두의 이 송고(頌古=頌)를 공안시의 백미라고 일컬어 왔다. 설두는 『벽암록』의 이 100개 송고에서 절구(絶句), 율시(律詩), 고시체(古詩體) 등 한문의 다양한 시체(詩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물론 설두 이전에도 시가(詩歌)의 형식을 빌어 선의 진수를 드러낸 <신심명(信心銘)>, <증도가(證道歌)>와 같은 작품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설두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이토록 직관적인 예지와 영감에 찬 언어로 읊어낸 예는 일찍이 없었다.

⑥ 송(頌)의 착어(著語): 설두의 공안시 한 대목 한 대목 밑에 붙인 원오의 촌평이다. 본칙의 착어에 비해서 그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것은 본칙이 아니라 본칙의 경지를 읊은 송(頌)의 착어이기 때문이다. 이 송의 착어는 대체로 본칙의 착어가 갖는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착어에는 때로 같은

말의 중복이 많다. 그것은 원오가 세 번의 『벽암록』 강의에서 세 번에 걸쳐 착어를 내린 것을 제자들이 그때그때 기록했거나 기억했던 것들을 그대로 필기해서 책으로 편집했다. 이 때문에 문장의 중복이 있다.

⑦ 송(頌)의 평창(評唱): 설두의 송고에 대한 원오의 평창이다. 기본골격은 본칙 평창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본칙 100개는 여러 사람의 필체로 쓰여진 데 비해서 이 <송>은 설두 한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평창에서의 설명도 여기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송>의 평창은 본칙평창에 비해서 대체로 짧은 경우가 많다. 문장의 참신함이 다소 떨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본칙과 송의 차이점이기도 하다.²³⁾

3. 한국에서 『벽암록』의 수용과 판본

3.1 한국에서 『벽암록』의 수용

末木文美士의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를 통해 『벽암록』의 현행본을 보면, 옛 사본으로는 일본 승려 도원(道元)이 송나라에서 귀국할 때 신인(神人)의 힘을 빌어 하룻밤에 베껴 쓴 것이라고 전해지는 이른바 일야본(一夜本)이 일본에 전한다. 이는 잘못 베껴 쓴 부분이 많고, 오자와 탈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간본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는 복본(福本)과 촉본(蜀本)이 있고, 현존하는 것은 당본(唐本)과 장본계(張本系)가 있는데, 장본계열에는 조선판과 오산판(五山版)이 속한다고 한다.²⁴⁾ 장본이란 원나라 장명원이 복간한 중간본(重刊本)을 말한다.

일본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録』을 통해 『벽암록』의 고판본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23) 원오극근 저, 석지현 역주 해설(2007), 28-31.

24) 末木文美士,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호(1992. 5. 30), 54-55.

25)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録』(東京: 日本佛書刊行會, 昭和37年=1962), 425. <② 卷冊,

④ 刊寫의 시기, ⑤ 소장자 혹은 수록된 목록, ⑦ 註記 등>을 나타낸다.

- (1) ② 10권, ③ 宋, 隱之重顯頌古 圓悟克勤評唱 ④ 宋, 宣和 7(1125), ⑤ 宮內 소장
- (2) ② 10권, ④ 南宋 建炎 2(1128), ⑤ 彰考
- (3) ② 10권, ④ 蜀本 成都府大聖慈寺 白馬院三聖堂 超大師印行 ⑤ 禪の書
- (4) ② 10권, ④ 大德 2(1298) 雪堂普仁刊 ⑤ 禪の書
- (5) ② (10권) 5책, ④ 元 延祐 4(1317)(序) 嶠中張明遠梓 ⑤ 妙心寺隣華院 建仁寺禪居院 永久
 - ⑦ 元 大德 4년(1300)부터 延祐 4년(1317)까지 전후 18년에 걸쳐 조성되었고, 이때 간행된 朝鮮本도 있는가? (鮮佛籍展目)²⁶⁾
- (6) ② (10권) 4책, ④ 元版
- (7) ② 10권 ④ (福本) (元末 明初) 福州城東尊儒坊口林宅刊
- (8) ② (10권) 4책, ④ 明 順治 10 嘉興府楞嚴寺 ⑤ 駒大明續藏 49의 3~6
- (9) ② (10권) 5책, ④ (朝鮮銅活字本) ⑤ 大東急, 積翠(有缺)
- (10) ② (10권) 5책, ④ 清 光緒 2(1876) 照慶寺慧空經房 ⑤ 駒大 141~109

『벽암록』이 1128년 간행된 이후 대혜가 책과 판목을 거두어 모두 불살랐다고 하였으나 (1), (2), (3)을 보면, 대혜종고에 의해 불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책이 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는 『벽암록』이 소각된 후 1300년부터 장명원에 의해 중간된 목판본을 말한다. 그런데 목록의 편자가 “이 시기에 간행된 조선본도 있는가”라고 의문문으로 끝을 맺은 것은 편자가 실물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鮮佛籍展目』이라는 목록을 보고 기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鮮佛籍展目』의 기술내용이 정확하다면, 장명원의 중간과 거의 동시에 고려에 수입되어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 고려시대에 판각된 『벽암록』도 전하지 않고, 또 『鮮佛籍展目』도 전하지 않으니 고려본 『벽암록』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볼 때에 고려 후기 선종계에서 『벽암록』이 중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단적으로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원오의 착어 중에 『벽암록』에서 인용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²⁷⁾

조선 세조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많은 불서를 국역하여 한번 판각

26) 목록의 편자가 “이 시기에 간행된 조선본도 있는가?”라고 한 것은 실물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鮮佛籍展目』이라는 목록을 보고 기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鮮佛籍展目』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확인할 수 없다.

27) 조명제, “수선사의 『선문염송집』 편찬과 圓悟克勤의 저작,” 초고, 9.

하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벽암록』은 이때 국역되지 않았다. 한문본이 장명원 중간본을 모본으로 세조조에 조성된 금속활자(동활자)인 을유자로 인출되어 전해지는 책이 (9)이다. 활자인쇄는 일정부수를 인출하고 나면 판을 해체하므로 을유자본 『벽암록』의 확산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벽암록』이 간경도감에서 국역되어 간행되지 않았던 이유, 즉 『벽암록』이 조선 조에도 중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벽암록』과 성격이 비슷한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이 대중화,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안집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수요를 『선문염송』이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벽암록』이 대중화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문염송』은 보조 지눌의 제자인 진각혜심(眞覺 慧諶, 1178년(고려 명종 8)~1234년(고종 21))에 의해 편찬된 선문공안집(禪門公案集)이다. 혜심은 문인 진훈(眞訓)과 함께 고칙(古則) 1,125칙(則)을 불경 또는 조사(祖師)의 어록에서 발취한 다음 그에 대한 강령의 요지를 제시한 염(拈)과 송(頌)을 붙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강원의 기본학습서로 채택되어 선종의 승려들은 반드시 이를 공부하였고, 선종선(禪宗選)에서도 이 책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다.²⁸⁾ 이처럼 『선문염송』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벽암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28) 『선문염송』의 내용은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에는 석가모니불에 대한 30가지 화제를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석가모니 직계제자들의 화제 41개를 수록하였다. 제3권에는 여러 불경에 실린 화제와 조사에 대한 화제 32개를 수록하였고, 제4권에는 제6조 혜능(慧能)부터 혜충국사(慧忠國師)까지의 화제 33개를 수록하였다. 제5권부터는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의 고승들이 남긴 법문 가운데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으고, 그 화제 밑에 염·송·법어 등을 채집하여 수록하였다.

조간본은 남아 있지 않으며, 몽고의 전란으로 초판이 불탄 뒤 1244년(고종 31)에 대장도감(大藏都監) 남해분사(南海分司)에서 개판하였다. 그런데 이 때 새로이 347칙을 더하여 1,472칙을 수록하였다고 한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개판되어 현재는 1568년(선조 1)의 법흥산 법흥사(法興寺) 간행본과 1634년(인조 12)의 수청산 용복사판(龍腹寺板), 1636년의 천봉산 대원사(大原寺) 개판본, 1682년의 대원사 간행본, 1707년(숙종 33)의 팔영산 능가사판(楞伽寺板)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4993&cid=46648&categoryId=46648>>, 2014. 10. 11. 접속.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한국불교는 보조지눌 이후 보조지눌의 정신적 스승인 대혜종고에 대한 존숭(尊崇)으로 간화선이 한국선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벽암록』은 대혜종고가 수행자들이 깨달음보다는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염려하여 불태웠던 책이기에 대혜종고의 뜻을 받들어 불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셋째, 『벽암록』은 공안집으로 대단히 난해한 책이다. 조선시대는 송유억불정 책으로 승려들의 한양도성 출입이 금지되는 등 불교가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려시대와는 달리 학력이 높은 지식인들의 불교 귀의가 적었으므로 난해한 『벽암록』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실록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연산군 7년(1501) 9월 17일에 일본국 사신 봉중(朋中)과 지침(智瞻) 등이 『동파시집(東坡詩集)』과 『벽암록(碧巖錄)』과 『황산곡(黃山谷)』 등의 책을 요구하므로, 이를 주도록 명하였는데, 『벽암록』은 무슨 책인지 몰라서 봉중에게 물었다.²⁹⁾고 한 것을 볼 때 『벽암록』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선조에서 『벽암록』은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간경도감에서 국역되지 못하였고,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벽암록』에 대한 주석서나 비평서도 거의 편찬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의 대학도서관이나 국학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벽암록』을 보면,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을유자본 『벽암록』 이외에는 일본에서 간행된 『벽암록』이 대부분이다. 일본 불서들이 우리 대학도서관에 유입된 시기는 개항기나 일제 강점기로서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와 교류가 많았던 시기로 추정된다.

『벽암록』에 대한 국역서나 주석서가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벽암록』이 대중화,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하겠다.

29)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9월 17일(임진).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표 1> 국내 주요 기관 소장 『벽암록』 판본

	국내	일본			중국
표제	佛果園悟禪師 碧巖錄	佛果園悟禪師 碧巖錄	佛果園悟禪師 碧巖錄	佛果園悟禪師 碧巖錄	佛果園悟禪師 碧巖錄
권책	10권5책	10권5책	10권2책	10권2책	10권5책
변란	사주단변	사주단변	사주단변	사주쌍변	사주쌍변
광곽	19.8 × 14	18.1 × 12.5	18.2 × 12.7	12.9 × 9.3	18.4 × 10.9
계선	유계	무계	무계	유계	유계
항자수	11行19字	11行21字	11行21字	13行26字	8行18字
관심	상하내향후어미	상내향후어미	상내향후어미	상후어미	하후구
판본	금속활자본 (을유자)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간행지	[한양]	京都	京都	京都	[중국]
간행처	[주자소]	禪家書林	具葉書院	具葉堂	照鏡寺
간행년	1465(세조 11)	1859	1859(安政 6)	1894(明治 27)	1876(光緒 2)
소장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출판박물관 (10권5책) • 국립중앙도서관 (권6-8) • 호림박물관 (권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중앙도서관 • 송광사 성보박물관 • 동국대 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대 도서관 • 용화사 목담유물관 자료실 • 동국대 도서관 • 계명대 동산도서관 • 성균관대 존경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존경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 도서관

위에서 보듯이 국내의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벽암록』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본이고 간혹 중국본도 있다. 이는 다른 불서와 비교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벽암록』에 대한 관심이 일본불교의 영향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2 국내에 전존하는 『벽암록』의 판본

국내에 전존하는 『벽암록(碧巖錄)』의 판본으로 알려진 것은 (9)의 朝鮮銅活字本人 을유자 중간자본 1종뿐인데, 울산의 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 1종을 필자가 조사한 적이 있다. 여기서는 을유자본 『벽암록』과 목판본 『벽암록』을 대상으로 서지사항과 편찬체제를 비교하여 그 계통을 밝히고자 한다.

1) 서지사항의 비교

현존하는 『벽암록』 2종의 판본, 즉 금속활자본 『벽암록』과 목판본 『벽암록』의 서지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활자본 『벽암록』은 조선 세조(世祖) 11년(1465)에 제작한 동활자인 을유자(乙酉字) 중간자(中間字)로 닥나무에 벗짚을 섞어 만든 누런 종이에 찍었으며, 크기는 세로 28.3cm, 가로 19cm이다. 이 판본의 완결인 10권5책 『벽암록』은 현재 보물 제1093호((1991.9.30)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³⁰⁾ 동일 판본이 일본의 대동급기념문고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세조는 즉위 10년(1464)에 원각사(圓覺寺)를 짓기 시작하는 한편,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에게 명하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교수(校讎)하게 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을유자를 주조하게 했다. 그 주조 사실은 『세조실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김종직(金宗直)이 쓴 <갑진자(甲辰字) 주자발(鑄字跋)>에 “을유자는 그 자체가 단정하지 못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쓸 수 없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

30)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碧巖錄)”,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930000,11>, 2014. 9. 15. 접속.

* 보물 제1093호의 명칭이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碧巖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과환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碧巖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1)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錄』(東京: 日本佛書刊行會, 昭和37年=1962), 425.

話』에는 “세조 11년에 『원각경』을 인출하고자 정난종에게 자본을 쓰게 하여 주조한 활자가 을유자인데, 그 자체가 매우 고르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²⁾ 이처럼 을유자는 자체가 고르지 않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조판하는 데에도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을유자는 1485년(성종 16)에 갑진자를 주조할 때 녹였으므로 을유자본 『벽암록』의 인출연대는 을유자가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1465(세조 11)~1484(성종 15)년까지라고 하겠다.

목판본 『벽암록』은 4권1책이며, 권말에는 “嘉靖五年丙戌(1526)五月日 黃海道黃州牧深源寺留板”이라는 간기(刊記)로 보아 1526년(중종 21) 황해도 황주목 심원사에서 판각,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선학사전(禪學辭典)』에 “1526: 深源寺에서 南明泉和尚頌證道歌·碧巖錄 刊行”³³⁾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실물이 학계에 아직 소개되지는 않았다. 이 책은 현재 울산시 소재 천태종 사찰인 양덕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두 판본의 서지사항을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2) 정난종은 송설체(松雪體)의 해서(楷書)에 능하여 창덕궁(昌德宮) 안의 여러 전문(殿門)의 편액 또는 봉선사(奉先寺)의 종명(鐘銘) 등을 썼던 당대의 명필가였다. 그러나 이 송설체의 글자가 진체(晋體)처럼 글씨체가 바르지 못하여, 그 글자체를 바탕으로 주성환 을유자도 단정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484년(성종 15)에 갑진자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을유자는 글자 모양이 단정하지 않아 인쇄하기를 꺼려 하였고, 겨우 20년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본(印本)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을유자의 인본으로는 『구결원각경(口訣圓覺經)』을 비롯하여 육경합부(六經合部) 중의 『금강경계칭(金剛經啓請)』·『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 합편, 『벽암록(碧巖錄)』·『병장설(兵將說)』·『당서(唐書)』 등이 있을 뿐이다. “을유자(乙酉字)”,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3) 李哲敎,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서울: 佛地社, 1995), 813.

<표 2> 을유자본 『벽암록』과 목판본 『벽암록』의 서지사항 비교

		을유자본 벽암록 권134)	목판본 벽암록 권1
권수제면			
서명(권수제)		佛果園悟禪師碧巖錄	佛果園悟禪師碧巖錄
저자사항		師住澧州夾山靈泉禪院評唱 雪竇顯和尚頌古語要	師住澧州夾山靈泉禪院評唱 雪竇顯和尚頌古語要
판사항		금속활자본(을유자 중간자)	목판본
간사 사항	간행지	[한양]	황해도 황주목(黃州牧)
	간행처	[주자소]	심원사(深源寺)
	간행년	1465(세조 11)~1484(성종 15)년	嘉靖5年丙戌(1526, 중종 21)
형태 사항	권책수	10卷5冊(完)	4卷1冊
	변란	사주단변(四周單邊)	四周單邊
	계선	유계(有界)	無界
	반곽의 크기	반곽(半郭) 19.5cm×13.3cm	半郭 19×13.2cm,
	향자수	반엽(半葉) 11행(行) 19자(字) 註雙行	半葉 11行19字 註雙行
	판구	백구(白口)	大黑口(권1), 白口(권2~4)
	어미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黑魚尾
	책크기	28.3cm×19.0cm	26cm×17.2cm
관심제		碧岩	碧岩
문화제		보물 제1093호	

위 <표 1>에서 보듯이 금속활자본 『벽암록』과 목판본 『벽암록』은 서명 저자 사항, 형태사항에서 사주변란, 항자수, 어미, 글자의 모양은 동일하고, 반곽의 크기와 책크기는 비슷하므로 금속활자본 『벽암록』을 뒤집어서 새긴 번각본이 목판본 『벽암록』으로 판단된다. 양자의 차이는 계선의 유무와 판구에서 흑구의 유무이다. 계선이 없는 것은 번각할 때 판각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선을 새기지 않을 수 있으며, 판구의 경우에는 번각할 때 모본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선의 유무와 판구의 상이함이 번각본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본다.

권수면에 저자가 “師住澧州夾山靈泉禪院評唱 雪竇顯和尚頌古語要”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원오)선사께서 예주(澧州)의 협산(夾山)에 있는 영천선원(靈泉禪院)에 계시면서 설두중현(雪竇重顯) 화상의 송고(頌古)에 대하여 평창을 붙인 핵심 말씀(語要)”³⁵⁾이라는 뜻이다.

2) 편찬체제의 비교

을유자본 『벽암록』은 10권5책이고, 목판본 『벽암록』은 4권1책이다. 을유자본 『벽암록』은 1권에 본칙 10개씩, 전 10권에 100개의 본칙이 10권5책으로 편철되어 있고, 목판본 『벽암록』은 1권에 본칙 10개씩, 권1에서 권4까지 본칙 1부터 40까지 40개의 본칙이 4권1책으로 편철되어 있다.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의 을유자본 『벽암록』과 동일한 판본이 일본의 대동급기념문고(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백련선서간행회에서 국역한 『碧巖錄』 권두의 “벽암록 해제”에서 이 두 판본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있다.

『벽암록』의 텍스트와 그 계통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서는 이 책의 대본이

34)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930000,11#>, 2014. 9. 15. 접속.

35) 신규탁(2011), 5.

된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이하 삼성본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삼성본 『벽암록』은 조선조 세조 11년(1465)에 제작한 을유자(乙酉字: 중간 크기의 동활자)로 찍은 책이다. 이 책은 ① 보조의 서, ② 만리방회(萬里防回)의 서, ③ 삼교노인의 서, ④ 주치의 서의 순으로 서가 붙어 있다. 그리고 ① 무당의 후서, ② 회룡의 후서, ③ 정일의 후서, ④ 풍자진의 후서, ⑤ 중간원오선사벽암집소 순으로 후서가 붙어 있다. 이 후서 중 ② ③ ④에 모두 장명원의 재판(再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본은 장명원본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활자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흥장속장본과 건릉장본의 권제10 뒤에, 「북판(北版)」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대목이 있는데, 삼성본도 「북판」이 오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장명원본 계통 중에서도 「북판」과 같은 계통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삼성본은 각 칙의 내용을 표시하는 제목이 없고, 각 칙의 본칙의 첫머리에 번호가 붙어 있고, 권제1 끝에 ‘협산무애선사항마표’가 없는 점 등이 중국의 명본(明本), 가흥장속장본, 건릉장본, 대청광서본과는 다른 점이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에 삼성본은 옛날의 원형에 가까운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삼성본은 1991년 9월 30일에 보물 제1093호로 지정된 책으로, 두 권씩 제본하여 5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1책은 27장, 제2책은 1장, 제3책은 12장, 제4책은 3장이 각각 빠져 있고, 제5책은 온전하다. 그리고 뒷사람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1책·제4책·제5책의 일부의 순서가 뒤바뀐 듯하다. 본 선림고경총서의 영인본에서는 다른 판본 등과 대조하여 삼성본의 순서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삼성본의 빠진 부분과 파손된 글자는, 조선의 을유자로 인쇄된 일본의 대동급기념문고(大東急記念文庫) 소장본을 이용하여 복원하였다. 이 일본 소장본은 일본인의 손에 의한 토가 달려 있어, 독자들은 삼성본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금속활자인 을유자본과 목판본인 심원사판본, 두 판본의 편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록 내용을 살펴보았다. 을유자본으로는 동일판본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 일본 대동급기념문고 소장본을 이용한 복원본³⁷⁾과 심원사판본의 편차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6) 백련선서간행회, “(벽암록) 해제,” 圓悟克勤 著, 백련선서간행회 역, 『碧巖錄』上, 禪林古鏡叢書 35 (합천: 藏經閣, 1993), 10-12.

37) 일본 대동급기념문고 소장본을 이용하여 복원한 을유자본 『碧巖錄』은 백련선서간행회 역, 『碧巖錄』上中下 각 책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다.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園悟禪師碧巖錄)』의 편찬과 수용

<표 3> 『벽암록』의 판본별 편차 비교

판종	금속활자본(을유자본)		목판본(심원사판본)
소장처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보물)	선림고경총서 영인본 (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본을 이용한 복원본)	양덕사 소장본
1책 권수	×	建炎戊申(1128)...普照謹序	建炎戊申(1128)...普照謹序
"	×	大德四年庚子(1300)...方回萬里序	大德四年庚子(1300)...方回萬里序
"	×	大德甲辰(1304)...三教老人書	大德甲辰(1304)...三教老人書
"	×	大德九年歲乙巳(1305)...聊城周馳書	大德九年歲乙巳(1305)...聊城周馳書
"	×	×	重刊園悟禪師碧巖集疏: 今日日疏
1책 본문	1책 권1: 1	1책 권1: 1-10	1책 권1: 1-10
	大德甲辰(1304)...三教老人書		
	大德九年歲乙巳(1305)...聊城周馳書		
	2-10		
"	권2: 11-20	권2: 11-20	1책 권2: 11-20
2책	2책 권3: 21-30	2책 권3: 21-30	1책 권3: 21-30
"	권4: 31-40	권4: 31-40	1책 권4: 31-40(39결)
3책	3책 권5: 41-50	3책 권5: 41-50	×
"	권6: 51-60	권6: 51-60	×
4책	4책 권7: 61-70	4책 권7: 61-70	×
"	권8: 71-80	권8: 71-80	×
5책	5책 권9: 81-90	5책 권9: 81-90	×
"	권10: 91-100	권10: 91-100	×
5책말 後序	宣和乙巳(1125)...無黨記	宣和乙巳(1125)...無黨記	×
"	延祐丁巳(1317)...希陵拜書以爲後序	延祐丁巳(1317)...希陵拜書以爲後序	×
"	大德壬寅(1302)...淨日拜手謹書	大德壬寅(1302)...淨日拜手謹書	×
"	延祐丁巳(1317)...馮子振題	延祐丁巳(1317)...馮子振題	×
"	重刊園悟禪師碧巖集疏: 今日日疏	重刊園悟禪師碧巖集疏: 今日日疏	권수에 편철
간기	×	×	嘉靖五年丙戌(1526)五月日黃海道黃州牧深原寺留板
판종	금속활자본(을유자본)	금속활자본(을유자본)	목판본(심원사판본)
권책수	10권5책	10권5책	4권1책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벽암록』의 원문³⁸⁾은 위 <표 3>에서 보듯이 서문 2개가 본문의 본칙 1의 셋째 장부터 세 장이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외에 낙장도 있어 선림고경총서 영인본에서도 편차와 원문을 일본의 대동급기념문고 소장본을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따라서 대동급기념문고 소장본을 이용하여 복원한 을유자본, 즉 선림고경총서 영인본과 양덕사 소장 심원사판본의 편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을유자본 『벽암록』은 10권5책이다. 구성을 보면, 권수부에 ‘① 建炎戊申(1128)…比丘普照謹序, ② 大德四年庚子(1300)…方回萬里序, ③ 大德甲辰(1304)…三教老人書, ④ 大德九年歲乙巳(1305)…周馳書’에서 보듯이, 1128년 송나라의 普照에서부터 1305년 원나라 周馳까지 180년에 걸쳐 쓰여진 4편의 서문이 편철되어 있다.

본문에는 『벽암록』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본칙, 즉 100개의 옛 공안과 앞의 수시와 뒤의 착어, 본칙의 평창, 송(頌), 송의 착어, 송의 평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본칙이 1권에 10개씩, 전 10권에 100개의 본칙이 배열되어 있으며, 2권이 1책으로 장정되어 있다.

본문의 체제를 살펴보면, 먼저 “수시운(垂示云)”이라는 말로 원오의 수시를 적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서 “거”(擧)라고 하여 설두의 본칙을 실었다. 본칙에는 따로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다만 사각 혹은 원의 목등에 음각한 숫자로 본칙의 차례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설두의 송은 매번 “송운(頌云)”이란 말로 시작하여 표시하였으며, 송이 끝난 다음에는 송에 나오는 벽자(僻字)를 사각의 목등 안에 음각하여 반절로 그 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설두의 본칙과 송은 한 글자 내려서 새김으로써 원오의 말과 구별이 되도록 하고 있다.

권10의 다음인 권말부에는 ‘① 宣和乙巳(1125)…無黨記 ②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 今月日疏 ③ 大德壬寅(1302)…淨日拜手謹書 ④ 延祐丁巳(1317)…希陵拜書以爲後序 ⑤ 延祐丁巳(1317)…馮子振題’에서 보듯이, 1125년부터 1317년까지 190여년에 걸쳐 씌어진 후서가 5편 편철되어 있다.

38) “벽암록”,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http://www.memorykorea.go.kr/>>, 2014. 10. 6. 접속.

심원사판 목판본 『벽암록』은 4권1책이다. 이 『벽암록』에는 권수에 보조(普照), 방회만리(方回萬里), 삼교노인(三敎老人), 주치(周馳)의 서문과 ‘중간원오선사벽암집소(重刊園悟禪師碧巖集疏)’가 차례로 편철되어 있다. ‘중간원오선사벽암집소’가 을유자본에서는 책말에 편철되어 있는데 비해, 목판본 『벽암록』에서는 권수의 마지막, 즉 본문 앞에 편철되어 있다.

본문에는 권1에서 권4까지, 40개의 본칙이 배열되어 있다. 권말에는 “嘉靖五年丙戌五月日 黃海道黃州牧深源寺留板”이라는 간기와 시주질이 있다. 이로 보아 이 책은 1526(嘉靖 5, 中宗 31)년에 황해도 황주에서 인출되었으며, 이 해에 『남명천화상승증도가』도 인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목판본 『벽암록』은 왜 4권1책인지가 의문이다. 100칙 가운데 40칙만 고른 것인가? 아니면 41칙부터 100칙까지가 다 간행되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전하지 않는 것인가? 40칙만 고른 것인지 아니면 후반부가 사라진 것인지는 고칙의 편차를 확인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다음의 <사진 1> 에서 보듯이, 을유자본과 심원사판본의 권4의 권수제면에 동일하게 본칙 31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유자본과 심원사판본 모두 권4에는 본칙 31부터 40까지 동일하게 편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심원사 간행 『벽암록』은 축약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권6부터 권10까지의 후반부 6권은 분실되고 권1부터 권4까지 4권만 남아있는 것일까? 필자는 후반부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4권1책만 간행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권말에 간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찰판본의 경우, 권말에 기원문을 쓰고 간경(刊經)의 시주, 역승(役僧), 각수의 이름³⁹⁾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간행했는지의 정보를 담은 간기를 기록한다. 둘째, 을유자본에서 책말에 편철되어 있던 <중간원오선사벽암집소>가 권수(卷首)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만약 4권1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권말에 있던 후서 <중간원오선사벽암집소>를 권수로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9) 前間恭作 著, 安春根 編譯, 『韓國板本學』(서울: 汎友社, 1985), 35.



<사진 1> 『백암록』 권4의 권수제면과 간기면

4. 맺음말

목판본인 심원사판 『백암록』 발굴을 계기로 『백암록』의 저자, 편찬과 중간과정, 구조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백암록』의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현존하는 판본인 을유자본과 새로 소개하는 목판본의 서지사항, 편찬체제 등을 비교하여 두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설두중현의 『송고백칙』을 강의한 원오극근의 강의록[백암록]을 원오극근의 제자들은 1105년경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며, 1125년에는 이미 『백암록』이 필사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필사본 『백암록』은 강의장소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 성도본(成都本), 협산본(夾山本), 도림본(道林本)의 3종이 존재했다.

2) 『백암록』은 원오가 입적하기 전인 1128년경에 처음으로 간행된 후 많이

유포되자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대혜종고에 의해 1163년[대혜의 몰년] 이전에 소실되었고, 처음 간행된 지 172년 만인 1300년에 원나라의 장명원에 의해 중간되었다. 장명원은 중간할 때 사본(寫本), 설당간본(雪堂刊本), 촉본(蜀本) 등의 이본을 참고했다.

3) 『벽암록』은 고려와 조선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간경도감에서 국역되지도 않았고, 주석서나 비평서도 편찬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벽암록』을 대신할 혜심의 『선문염송』이 중시되었으며, 『벽암록』을 배척한 대혜종고를 존송하는 불교계의 분위기, 불교를 억압하고 천시하는 조선조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난해한 공안집인 『벽암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4) 새로 소개되는 목판본인 심원사판 『벽암록』은 보물로 지정된 을유자본 『벽암록』과 서지사항을 비교하면, 계선과 흑구의 차이만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를 볼 때 목판본 심원사판 『벽암록』은 보물로 지정된 을유자본 『벽암록』의 번각본이다.

5) 을유자본 『벽암록』은 10권5책, 심원사판 『벽암록』은 4권1책으로 전자는 고칙 1부터 100까지 100개를 다 수록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1부터 40까지 40개만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심원사판 『벽암록』은 을유자본 『벽암록』의 축약본은 아니다.

6) 『벽암록』에 대한 국역서가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볼 때, 『벽암록』이 대중화, 일반화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 불교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벽암록』의 수용 또는 전개 양상을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한다면 한국 불교의 독자성과 중국 및 일본 불교와의 차이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권희. “장서각 소장 불교 典籍文化財의 書誌 연구.” 『藏書閣』 제29집(2013. 4). 10-43.
- 朴相國 編著.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 裴賢淑.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합집(1990. 6). 161-181.
- 변희욱. “公案, 왜? 어떻게?: 圓悟의 頓悟說과 公案觀.” 『哲學』 제92집(2007. 8). 55-82.
- 宋炳珍. 『碧巖錄 研究』. 부산: 半島印刷社, 2004.
- 신규탁.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강의, 참구에 관한 검토: 『벽암록』 제1칙 『달마불식(達磨不識)』 번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선학』 제30권(2011. 12). 185-211.
- 오양열.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심원사 대보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아르코(arko) 제163호(2010. 7. 20).
- 圓悟克勤 著, 백련선서간행회 역. 『碧巖錄』 上中下. 禪林古鏡叢書 35-37. 합천: 藏經閣, 1993.
- 원오극근 著, 석지현 역주 해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碧巖錄』 1-4. 서울: 민족사, 2007.
- 李哲敎,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 서울: 佛地社, 1995.
- 前間恭作 著, 安春根 編譯. 『韓國板本學』. 서울: 汎友社, 1985.
- 정영식. 『간추린 한국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시대까지』. 서울: 운주사, 2014.
- 정영식. “일본 화엄승 鳳潭의 『벽암록』 비판: 『鐵壁雲片』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36권(2013. 12). 136-159.
- 정영식. 『韓國看話禪의 源流』.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조명제. “수선사의 『선문염송집』 편찬과 圓悟克勤의 저작.” 초고.
- 지안. “교리&법문 <41> “깊은 근원 가려내 바닥의 숨은 도리 분석”: 대표적 공안(公案) 평창집(評唱集)<벽암록(碧巖錄)>.” 『불교신문』 제2971호(2013. 12. 18).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서울: 이회문화사, 2011.

“(선사들의 선문답) 원오극근과 대혜선사”. 『불교신문』 302호. 1998. 12. 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4>>.

“벽암록 읽기”. <<http://www.gosinga.net/archives/2369>>.

駒澤大學圖書館 編. 『新纂禪籍目錄』. 東京: 日本佛書刊行會, 昭和37年=1962.

末木文美士.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18호(1992. 5. 30).

51-81.

『大藏經入門；爲單篇書目簡介』. 台北: 嚴寬祐文教基金會, 2003.

<http://buddhism.lib.ntu.edu.tw/BDLM/toModule.do?prefix=/search&page=/search_detail.jsp?seq=350394>.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불교용어사전 <<http://dic.dharmanet.net/>>.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